

## 시론

주정민  
전남대 대학원장

## AI 시대, '질문하는 교육'과 대학의 역할

진학한다.

대학은 이 한계를 극복해야 할 최후의 교육단계다. 급변하는 지식 환경 속에서 대학의 존재 이유는 더 이상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지식의 재구성과 창출에 있다. AI 시대의 대학은 정보를 단순히 주입하기보다, 학생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고의 틀을 넓혀주어야 한다. 교수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질문하도록 유도하는 촉매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질문 능력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는다. 깊이 있는 질문은 넓은 지식 기반과 논리적 사고, 그리고 본질을 깨뚫는 통찰이 결합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질문력은 단순한 언어적 능력이 아니라, 학문적 성찰의 총합적 표현이다. AI가 제시하는 정보의 맥락과 한계를 구별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재조직할 수 있는 능력 역시 이러한 질문적 사고로부터 비롯된다.

AI의 작동 방식 또한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한다. AI는 스스로 지식을 창조하지 않는다. 인간이 축적하고 생산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분석해 결과를 산출할 뿐이다. 따라서 AI가 고품질의 지식을 제공하려면, 인간 사회에서 생산되는 지식의 깊이와 정확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 더 나은 AI를 만들기 위한 조건은 결국 더 나은 인간의 학문 활동이다. 인간이 지식의 창조자이자 AI의 '교

사'로 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일부에서 AI의 발전이 인간 학습을 대체한다고 오해하는 데 있다. "AI가 다해줄 수 있다"는 생각은 지식의 본질을 기술로 환원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AI가 학습하는 모든 자료는 인간이 만든 것이며, 인간의 학문적 활동이 멈추면 AI 또한 더 이상 발전 할 수 없다. 인간이 학문적 성찰과 질문을 멈추는 순간, AI는 과거의 데이터에 갇혀 진보를 멈추게 된다.

따라서 AI 시대의 대학교육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첫째, 교육과정의 중심을 '정답 중심식 학습'에서 '문제 중심 탐구'로 전환해야 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설정하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분석하며, 타인의 관점과 비판 속에서 새로운 해석을 도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을 막론하고 비판적 사고와 표현 중심의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것이 AI 시대 교육혁신의 실질적 출발점이다.

AI가 정보를 제공하는 시대일수록, 그 정보를 분별하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지성이 더욱 중요하다. 대학이 이러한 철학을 중심에 두고 교육체계를 재구성할 때, 학생들은 AI에 휘둘리지 않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주체적 시민으로 성장할 것이다. 결국 AI 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생각하는 인간', 그리고 '질문하는 인간'에게 있다.

## 本土說

## 전남 농민이 반토막 벼 경영안정비에 반발하는 사정

전남도와 의회가 내년도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절반으로砍감했다. 반토막 난 과정은 이렇다. 도의회가 농어민 공의수당을 내년부터 60만 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시키고 예산을 624억 원으로 99억원을 증액하면서 재원 부족을 구실로 228억원에서 114억원으로 칼질한 것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다. 농민들이 단단히 뿔난 사정이 여기에 있다.

변화된 농경 환경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전남도의 해명이다. 정부의 쌀값 안정 체계 강화, 시·군 재정 부담 가중, 기본소득 도입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한다. 하지만 농민단체는 떠내 농업 소득이 10년째 제자리로 지금보다 예산을 2배 늘려도 모자랄 판이라며 원상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사전에 당사자와 협의 절차도 없었다며 불만스로리다.

직불금 성격의 벼 경영안정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농민들은 근시안적, 일방통행 행정에 분통해하는 반면에 전남도는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뭄과 홍수 등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가 일상화되며 농업의 변동성이 커졌다. 지속 가능성은 확보하는 것은 당면 문제가 됐다. 농민을 우롱했다는 비판에 고개 숙여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 국가 관리 광주 5·18사적지 보존·활용 신중한 접근을

광주시가 내년도 국비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하면서 민주주의 도시 광주를 계승하는 '빛의 혁명' 예산도 포함됐다. 5·18 구묘지 민주공원 조성, 옛 광주직접사병원 보존 및 활용 사업이 그것이다. 사적지 지정 28년 만에 처음이다. 5·18 구묘지는 당시 희생자들이 청소자와 수레에 실려 매장된 장소로 진상 규명 투쟁의 발원지다. 전두환 정권의 폐쇄 시도에도 지켜냈다. 옛 적십자병원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피를 나누고 부상자를 치료한 생명 나눔의 현장이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소설 '소년이 온다'의 배경지다.

5·18 사적지의 가치야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반헌법적인 12·3 비상계엄을 시민들의 저항으로 무력화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제1호에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선정돼 후속 조치가 주목받고 있다. K-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으로 국내외에서 재조명되는 만큼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5·18 단체와 전문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대한민국의 대표 콘텐츠로 광주의 위상을 제고할 종합 계획을 짚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곳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1층 디지털 역사관에 쓰이는 AR/VR 기술도 어둠 속에서 이뤄지는 체험이 전제로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불거졌다. 1996년 서남학원이 부지를 사들인 이후 대학병원으로 바뀌었다가 경영난에 2014년 폐쇄됐으며, 2020년 광주시가 매입하기 전까지 방치됐다. 건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만 대원칙은 원형 보존이라며 일부 구간만 남겨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5·18 사적지의 가치야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반헌법적인 12·3 비상계엄을 시민들의 저항으로 무력화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제1호에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선정돼 후속 조치가 주목받고 있다. K-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으로 국내외에서 재조명되는 만큼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5·18 단체와 전문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대한민국의 대표 콘텐츠로 광주의 위상을 제고할 종합 계획을 짚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먼저 국가 트라우마센터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2~3층에 트라우마 치유 실증센터를 입점하는

## 그래픽 뉴스

## 대입제도 개선안 제안 내용

10일 서울시교육청,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 발표

2028학년도	2033학년도	2040학년도
적용(25년 기준) 고1 학생	초5 학생	5세
내신 평가 · 5등급 상대평가 · 절대평가 · 진로·융합 선택 과목 · 철학평가 전환	· 내신 절대평가 · 진로 전환 · (30년도 고1부터 적용) · 서·논술형 평가 확대	정착
수능 · 통합형 수능 과목 · 5·18 선사형 문항 중심 · 상대평가 및 절대평가 병행	· 절대평가 전환 · 서·논술형 평가 도입 · 수능의 대입 영향 축소	고교 교육과정 중심 대입 체계 정착 <b>수능 폐지</b>
전형 구조 · 수시·정시 분리 · 정시 수능 위주 선발 · 비율(30~40%) 폐지	· 수시·정시 통합 · 정시 수능 위주 선발 · 비율(11~12%) 대입 전형 실시 · 3학년 2학기 성적 반영	학생 성장 노력 중심 대입 지원 체계 정착
대학별 평가 · (서울 주요대학) 고교 유형별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지역별 평가 전환 확대	·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전면 개편 · (비수도권) 지역 기반 선발 전형 도입	학교 교육과정 성취 중심 평가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 보장

연합뉴스

자료: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모두 절대평균으로 바꾸고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는 대입제도 개선안을 10일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수능을 폐지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되는 2028학년도부터 2033학년도, 2040학년도 등 3단계로 나뉜다. 특히 현 초등학교 5학년에 적용되는 2033학년도 개편안으로 ▲내신 절대평가 전면 전환과 서·논술형 평가 확대 ▲수능 절대평

가 전환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수시·정시 통합 ▲비수도권 지역의 기반 선발 전형 도입 등을 제안했다.

수능에서 학생의 사고력과 탐구 과정,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는 서·논술형 문학의 비율은 2023학년도 30%에서 2025학년도 40%, 2027학년도 5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이다. 내신의 경우 2030학년도 고1 학생부터 절대평균을 전면 시행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 독자투고

## 안갯길 감속운전 생활화 우선하자

최근 낮과 밤의 일교차로 인해 새벽녘 도로 위에 끼어있는 자욱한 안개로 인해 운전에 애를 먹고 있다.

왜냐하면 심한날은 한치앞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짙은 안개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미친 눈을 감고 운전대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로 여건을 마주한 운전자들 상당수는 비상 등을 켜고 감속운전을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조심해서 운전하면 되겠지. 굳이 서행할 필요가 있나?'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과속 운행을 하는 모습을 볼때면 사고 걱정이 앞선다. 이처럼 짙은 안개는 운전자의 시야를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빛을 분산시키는 특성

때문에 전조등도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당연 앞자와의 거리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추돌사고로, 주행속도가 빠른 구간에서는 대형사고로 비화될 수도 있다. 이처럼 일교차 큰 만큼,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먼저 무조건 감속운전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안갯길 추돌사고는 감속없이 무모하게 앞차를 따라가다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한속도보다 50% 감속운행 해

야 한다. 또한 전방의 사고상황이나 앞차량 급정거리를 대비해 차간거리는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전조등이나 안개등을 켜 내 차의 위치를 상대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 무엇보다 안개는 예고없이 찾아오는 불정객이므로 연무가 짙은 날에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운전대를 잡는 것이 상책이다. 상습적으로 안개가 끼는 지역에서는 서행과 방어운전으로 나와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자.

〈김덕형·장성경찰서 삼서파출소장〉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 역 특 집 부 650-2060	광 고 문 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 캐 텅 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 영 지 원 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사 업 본부 650-2007	업 무 국 650-2019
문화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